

다윗, 드디어 왕

* 6/21(월) 사무엘하 ② 5-10장

사울과 다윗 1-4장	다윗 5-24장
<p>죽음, 사울 가문의 몰락 1-4장</p> <p>참고도서</p> <p>100주년기념 성서주석 두란노 HOW주석 통성경 길라잡이 다윗: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</p>	<p>▶ 이스라엘의 왕 다윗 5장 · 한 나라, 온 이스라엘의 왕 : 다윗 · 다윗, 예루살렘 점령</p> <p>▶ 여호와의 궤와 언약 6-8장 · 여호와의 궤, 예루살렘 입성 · 웃사의 죽음 : 베레스웃사 · 오벨에돔의 집 · 이스라엘의 언약, 다윗의 기도</p> <p>▶ 다윗과 므비보셋 9장 ·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</p> <p>▶ 다윗의 죄, 하나님의 용서 10-12장 · 다윗과 암몬 · 다윗과 우리아의 아내 · 나단의 우화 · 솔로몬의 출생 : 여디디야 압살롬의 폭주, 다윗의 도피 13장-19:8</p> <p>다윗의 귀환 19:9-21장 다윗의 찬송, 유언 22장-23:7 다윗의 용사들 23:8-39 다윗의 인구조사, 하나님의 보응 24장</p>

Before 출치며 읽기

<언약>을 성취하신 하나님을 묵상하며
통독해 보십시오.

After 묵상하기

나의
가고서는 것은
주님의 뜻에 있습니까?

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.

10여 년 동안의 도망자 신세, 7년 6개월간의 기다림 끝에
마침내, 다윗이 이스라엘 열두 지파의 왕이 됩니다.

온 이스라엘의 왕으로, 기름부음을 받습니다.
첫 번째 기름부음은 사무엘을 통해서였습니다(삼상 16:13).
두 번째 기름부음은 30세에, 유다 지파로부터였습니다(2:4).
두 번째 기름부음을 받은 후 칠년 반 만에,
세 번째 기름부음을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로부터 받습니다(5:3).
한 사람을 세워, 한 나라가 되게 하셨습니다.

그는 이름도 밝혀지지 않은 채, 성경에 등장했습니다(삼상 16:11-12).
한(限)없으신 주님이 *‘막내’의 한계를 넘게 하셨습니다.

슬픔 대신 희락을, 재 대신 화관을,
근심 대신 찬송을, 그의 한(恨)을 풀어주셨습니다.
한(限)없으신 주님이 나의 한(恨)을 풀어 주십니다.

*막내(막내, 하카톤)
하찮고 그다지 중요하지
않은 사람을 뜻합니다.

주변인에 불과했던 다윗이, 한 나라의 중심인물이 되었습니다.

• 드디어 **가는** 다윗

‘시온’ 예루살렘을 수도로 결정합니다(5:7).

예루살렘은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을 연결하는 요충지입니다.

현재의 수도 헤브론은 남쪽으로 너무 치우쳐져 있었습니다.

유다뿐 아니라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된 왕 다윗, 분열되었던 지파들이 하나가 된 지금 새로운 정부를 위한 새로운 중심지, ‘평화의 도시’ 예루살렘으로 수도 이전 계획을 추진합니다.

“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(5:10).”

그는 하나님을 단순히 아는 차원을 넘어, 하나님의 실체를 경험했습니다.

남과 북을 하나로 통합했습니다. 새로운 수도 예루살렘을 세웠습니다.

블레셋인들을 평정했습니다. 여호와의 궤를 수도로 가져왔습니다.

거대한 행렬, 고대한 행복을 이룹니다. 다윗의 업적을 세웁니다.

• **기꺼이 서는** 다윗

“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(7:2).”

궁에 사는 다윗이, 휘장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 해드리려 합니다.

하나님의 행하심보다, 그의 행함이 더 중요해질 뻔, 아찔한 순간입니다.

나단의 메시지에 다윗이 멈춰섭니다. “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…(7:18).”

하나님을 ‘위해’ 원대한 계획을 품었던 그가, 하나님의 ‘앞에서’ 다 내려놓고 앉습니다.

왕으로서의 주권을 내려놓고, 보좌에서 내려와 끓어앉았습니다.

순풍에 뜻을 단 배가 멈춰 섭니다. 다윗은 자신을 멈춰 세우시는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.

하나님을 위해 그가 집을 세워드리려 했습니다.

하나님이 다윗을 위해 집을 세우시는 것입니다.

여호와의 통치가 이스라엘의 언약을 견고하게 하십니다(사 11:1, 렘 23:5-6).

• **비로소 전하는** 다윗

<찐친> 요나단도 다윗에 대한 언약을 끝까지 지켰지만,

다윗 또한 요나단에 대한 언약을 마지막까지 지킵니다(삼상 20:42).

사울과 맷은 언약 또한 지킵니다(삼상 24:20-22). 사랑을 전합니다.

요나단에 대한 한없는 사랑이 므비보셋을 한없이 책임집니다(9:13).

아픔의 모서리는 그 끝이 무뎌졌습니다. 상처를 감싸 안은 채 그 자리에 머물지 마십시오.

누구나 아픔을 간직한 채 살아갑니다. 상처 때문에 먼저 손 내미는 게 어려우십니까?

마음을 여십시오. 그것만으로도 조금은 나아집니다.

하나님의 이름으로 **가**, **서**, 그 사랑을 **전하십시오**. 그것만으로도 주님이 다 하십니다.